

폭염에... 외식·배달업체 매출 ↑



뜨거운 열기 내뿜는 소리 않고 주문음식·식당가 이용 피서객 야외 고기파티도 포기...돼지막창집 매출 30% ↑

지난 20일 오후 6시,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A생선구이 전문점 앞에는 장을 보는 주부 서너 명이 모여 있었다. 이 생선구이 전문점은 화덕에 구운 생선을 포장해 줘 최근 주부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기특이나 무더운 날씨에 집안에서 생선 굽기 힘든 탓에 이곳 매출도 평소보다 2배가량 덩달아 뛰었다.

이 큰 폭으로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철에는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던 삼겹살 집도 무더위에 '야외 고기파티'를 포기하는 피서객이 늘면서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가 지난 1~18일 푸드코트와 식당가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9.1% 증가했으며 내방객도 10.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이마트 전체 매출이 1%가량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9배 이상 높은 신장률이다. 이마트는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뜰이나 더운 집에서 화기를 사용해 채

온도를 높이는 대신 인근 대형마트 등을 찾아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푸드코트와 식당가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분식이나 패스트푸드 등 간식류보다는 냉면이나 비빔밥 등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메뉴의 매출 신장률이 더 크게 나타난 것도 특징이다. 분식류의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6.3%, 패스트푸드는 3.0% 신장하는 데 그쳤으나, 푸드코트에서 파는 식재료의 매출은 40.0%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냉면이 잘 된 대형마트에서 장도 보고, 간단한 분식류를 먹으며 끼니를 해결하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배달음식 전문점과 고깃집들도 더위를 보고 있다. 광주시 서구 화정동 B국밥집은 무더

위 속에서 배달 주문이 늘면서 아예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인근의 C돼지막창집은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30% 올랐다. 너무 더워 야외나 실내에서 불을 피워 고기를 굽는 대신, 전문점을 찾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C돼지막창집 업주는 "직화구이를 하는 고깃집은 휴가철에는 야외에서 바베큐를 즐기는 소비자가 늘면서 사실상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다른 계절에 비해 많이 팔리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여름에 비해서는 오히려 매출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교통·생활·교육 중심 '상무 모아미래도'

마복동 지역주택조합 342세대 공급...28일 홍보관 오픈

광주시 마복동 지역주택조합이 서구 마복동 47-7번지 일원 34년 된 연화아파트 부지에 지역주택조합 사업방식으로 아파트를 추진 하고 있다. 사업예정지인 연화아파트는 상무GS 자이 아파트 옆에 위치하며 주변의 한신, 희망가, 양우내안에(신축예정) 아파트와 함께 1300여 세대의 아파트 군을 이룬다. 서광주로가 개통됐고 금부리가 예정돼 있어 서구의 중심지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이 사업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대지면적 1만6349㎡에 25평형(255세대), 30평형(30세대), 35평형(57세대) 총 342세대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됐다. <조합도> 이곳 일대는 금호지구와 상무지구를 5분 안에 있는 지역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우수한 광역 교통망과 상무지구, 생

활권 골드라인으로 통하는 프리미엄 교통의 요충지로 꼽힌다. 상무초, 전남중·고등학교에 도보통학 스쿨존 형성이 돼 교육 여건 또한 든든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또한 사업 예정지 정·후면 조망권이 좋고 인근에 산책로가 있어 도심과 자연을 넘나드는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시공은 모아건설 분사 브랜드인 모아미래도에서 한다. 주택건설의 외길을 걸어온 시공사인 모아건설은 지난 30여 년간 2만5000여 가구의 민간주택을 지어온 건설회사다. 한편, 홍보관은 오는 28일 광주시 서구 마복동 164-76번지에 오픈할 예정이다. 문의 062-385-778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 워드 여가야 놀이터' 주민 2000천명 참여 성황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20일 광주 상무1동 서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지역 문화공동체 행사인 '기아 워드 여가야 놀이터' 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아차 광주공장과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등 16개 기관, 상무1동 주민들이 참여했으며 지역민 축제인 '쌍촌골 축제 한마당'과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여가야 놀이터를 찾은 2000여의 주민들은 투호와 고리던지기, 제기차기, 비눗방울, 줄넘기 등 놀이활동과 공예체험, 풍선아트, 원예체험, 에코백 만들기 등도 진행했다. 또 신발던지기 게임과 쿠폰 체험 등을 통해 가족과 이웃간에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염원용 기아차 이사는 "지역사회 NGO 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전 'UAE 대학생 인턴 프로그램' 수료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프르지오밸리에서 '제1차 UAE 대학생 인턴 프로그램' 수료식을 가졌다. UAE 칼리파 공과대학교 카이스트에서 선발된 대학생 10명은 지난 7월부터 8월 17일까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 원전 관련 기관에서 원전 현장 실습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았다. <한국전력 제공>

광주은행, 중소기업 추석자금 3천억원 푼다

업체당 최고 30억원...전체 지방은행 대비 가장 높은 수준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 다가오는 추석에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추석 중소기업 특별 대출'로 신규자금 3000억원을 2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지원한다. 또한 3000억원의 만기연장 자금을 함께 편성해 이 기간 중 만기 도래 대출금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출자가 원할 경우 만기연장 해준다. 광주은행의 추석 중소기업 특별 자금 대출은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 자금 등을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부터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추석 특별자금 대출의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고 30억원 이내이며, 금리는 산출금리 대비 최대 0.7%포인트를 우대하고,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 차입만 최고 1.0%포인트까지 우대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4년 하반기 민영화 이후 꾸준히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전년(2015년)대비 올해 6

월말 현재 889억7100만원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5.1% 증가했다. 이는 경남은행(1.1%), 대구은행(3.1%), 부산은행(3.3%), 전북은행(1.8%) 등 전체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방은행 평균 2.9%를 상회하고 있다. 송중욱 광주은행 영업전략본부 부장은 "이번 추석 특별자금 대출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소재 중소기업에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지역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은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갈수록 팍팍한 살림

마이너스 대출, 대기업 대출 추월...잔액 5조원 늘어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 중에서 마이너스통장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 대기업 대출을 추월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의 잔액은 7월 말 현재 166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5월 2조원, 6월 1조7000억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월간 증가 폭이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연장으로 보면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은 올해 들어 5조1000억원이나 급증해 지난해부터 이어진 급격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의 잔액은 2014년 한 해 동안 1조9000억원이 늘었지만, 작년엔 증가 폭이 8조원으로 급증했다. 이로써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의 잔액은 두 달째 은행이 대기업에 빌려준 대출 규

모를 넘어섰다. 마이너스통장대출 잔액은 6월 말 165조8000억원으로 대기업 대출 163조8000억원보다 2조원 많아졌다. 7월에도 대기업 대출잔액은 164조3000억원으로 마이너스통장대출 잔액보다 2조원 작았다. 가계의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이 대기업 대출을 추월한 것은 지난 2013년 12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대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돈보다 가계가 은행에서 빌려 쓴 신용대출 등이 많아진 것이다. 이런 현상은 경기 부진 장기화와 소득 증가 부진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 생활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진 탓으로 풀이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도 떨어지면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신대학교

청(靑)소년 예비전문가를 위한

다같이 · 多
즐겁게 · 樂
모이자 · 房

교육일시

- ▶ 오펜강의(1회) : 2016년 9월 24일(토) 14:00 ~
- ▶ 청다락방 본강의(4회) : 2016년 10월 8일(토) ~ 10월 29(토) 매주 토요일 14:00 ~

장 소 광신대학교 국제관 1층 국제회의실

수 경 료 무료

신청문의

- ▶ 오펜강의(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 학생상담센터 062)605-0903 E-mail : flyhigh132@naver.com
- ※ 2016. 9. 8(목)까지(신청기한임수)
- ▶ 청다락방 본강의(4회) : 평생교육원 062)605-1112, 1063

강의일정

- ▶ 오펜강의 : 2016. 9. 24(토) 14:00 ~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 ※ 보건복지부 · 중앙자살예방센터(3시간) 수료증 발급

청다락방

회기	일정	주 제	강사
1	10월 8일	청소년정서코칭	조영미
2	10월 15일	청소년은 꿈쟁이 & 오목이!	안창현
3	10월 22일	청소년 게임 놀이치료	임은경
4	10월 29일	미술치료의 실제	이정은

▶ 주 최 : 광신대학교 상담치료대학원 청소년상담지도학과
▶ 주 관 :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옵션까지 제공(컴퓨터그래피에서 인디안까지)

Step 1. 박상정리
Step 2. 단열방수시공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장점

-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2/ 건축 내외장재 패던디자인이 잔 엔디나와의 클라보 디자인!
-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헛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번호: 10-0562035호, 10-1097784호, 10-054819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